

[해 - 기호와 사유]

#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를 통한 영화 「러브레터」 분석



인문학부 사학과 2011\*\*\*\*\*

정안진

# <목차>

## I. 서론

## II. 본론

### 1. 영화 「러브레터(Love Letter)」

- ① 줄거리 및 등장인물

### 2.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

- ① 기호 & 기호학적 연상
- ② 정체성·차별성
- ③ 언어(Langue)와 발화(Parole)

### 3. 분석

- ① 기호 & 기호학적 연상
- ② 정체성·차별성
- ③ 언어(Langue)와 발화(Parole)

## III. 결론

\*참고문헌\*

## I. 서론

기호학은 인간이 다루는 모든 상징체의 구조와 그것이 재현하는 사상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철학과 심리학 사이를 채우고 있는 상징체의 기본이 기호로, 기호학은 이 상징체의 창조와 의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sup>1)</sup> 언어기호학도 기호학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호와 언어에 대한 학문이다. 그렇기에 언어기호학은 언어 속에 존재하는 기호적인 특성을 다룬 것인데,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는 슬하하게 적용되어 사용된다.

특히, 우리가 쉽게 보는 영화 속에서 언어기호학적 모습이 잘 나타난다. 왜냐하면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전반적인 줄거리뿐 만 아니라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감독의 의도, 목적 등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상징적인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지나치며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기에, 언어기호학의 교과서와 같은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와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 「러브레터」를 통해 언어기호학적 특성이 영화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 의미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II. 본론

### 1. 영화 「러브레터(Love Letter)」

1999년에 개봉한 이와이 순지의 영화 러브레터는 2013년 2월, 11월, 2016년 1월에 재개봉할 만큼 국내에서도 유명한 영화이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연애영화라면 떠올리는 1순위 영화인 영화 러브레터는 한국에서 개봉하기 전에 30만의 불법 비디오가 유통되기도 하였고 개봉하고 나서는 115만의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일본 제 17회 요코하마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6개 부분을 수상하기도 한 러브레터는 유행어와 함께 슬한 패러디를 남기며 오늘날 까지 계속해서 화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러브레터의 전반적인 내용과 등장인물은 아래와 같다.

#### ① 줄거리 및 등장인물<sup>2)</sup>

영화 러브레터는 크게 세 명의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아련한 첫사랑의 이야기다. 2년 전 사랑했던 약혼남인 후지이 이츠키를 하늘로 보낸 와타나베 히로코는 아직도 그를 그리워해 그의 추모식 날, 그의 중학교 졸업 앨범에서 지금은 사라진 이츠키의 옛 주소를 발견하고 그리운 마음에 안부를 묻는 편지를 띄운다. 그러나 며칠 후 거짓말처럼 히로코는 후지이 이츠키로부터 답장을 받는다.

사실 답장을 보낸 사람은 히로코의 약혼남인 이츠키의 첫사랑이자 그와 이름 같은 동명이인의 동창 이츠키(女)가 보낸 것이었다. 이츠키(女)는 히로코의 편지를 받고 잊혀졌던 과거 이츠키(男)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서로 성별은 다른 동명이인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야유와 놀림을 받았던 그때의 이야기와 물건들을 히로코에게 보낸다. 히로코는 점점 그녀의 편지를 받으면서 이츠키(男)가 그녀를 좋아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히로코는 그의 졸업앨범에서 이츠키(女)와 자신이 매우 닮았다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오랜 시간 그를

1) 소두영, 인간사랑, 서울, 1996, 기호학 참조

2) 나무위키, “러브레터”, 2016.05.27,

<<https://namu.wiki/w/%EB%9F%AC%EB%B8%8C%EB%A0%88%ED%84%B0>>, 2016.06.10

잊지 못했던 것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히로코는 이즈키(男)가 죽었던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주변 지인 모두 흥얼거렸던 마즈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에 대해 알게 된다. 이 노래는 이즈키(男)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가면서 불렀던 노래로 이 노래의 첫 가사는 내 사랑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간다는 것인데 이는 일본 복단 오타루의 이즈키(女)를 향한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히로코는 완전히 그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들을 털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유명한 장면인 お元氣ですか、私は元氣です!(잘 지내나요, 저는 잘 지내요!)가 등장한다.

한편 이즈키(女)는 히로코의 부탁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중학교를 찾았다가 중학교 도서관에 퍼져있는 ‘이즈키’ 찾기 게임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는 온갖 도서카드에 쓰여있는 후지이 이즈키를 찾는 것인데, 아이들은 이것이 로맨틱한 스토리라며 웃는다. 하지만 이즈키(女)는 선생님께 이즈키(男)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오랜 시간 앓고 있던 감기가 심해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게 된다. 이때, 그녀 역시 お元氣ですか、私は元氣です!(잘 지내나요, 저는 잘 지내요!)라는 말을 읊조린다.

마지막으로 이즈키(女)는 이즈키(男)가 덜렁 책 한권을 주면서 반납해 달라며 떠나 버렸던 일을 회상한다. 당시 이즈키는(女)는 그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찾아갔던 중학교 도서관에서 중학생들이 보여준 도서대여 카드의 뒷장에 그려진 자신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 동안의 모든 기억이 끼워 맞춰지며 이즈키(男)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 2.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

스위스 출신 언어학자인 소쉬르는 언어학자로 근대 구조주의 언어학과 현대 기호학의 창시라고도 불린다. 또한 그의 이론들은 기호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은 여러 제자들의 강의노트 등을 모아 책을 만드는데, 이것이 소쉬르의 책 『일반언어학강의』이다. 이는 그의 언어에 대한 생각이나 학문적 업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 ① 기호 & 기호학적 연상

언어학은 기호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말하는 언어인 기호(sign)는 청각영상인 기표(signifiant)와 개념인 기의(signifié)로 이루어져있다. 예를 들어, 나무가 기표가 된다면 기의는 ‘잎·줄기·뿌리가 있는 다년생 식물’이 될 것이며 이 둘이 합쳐져 하나의 기호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기표는 나무 뿐 만이 아니라 tree, 木, arbor등으로 계속 변하면서 하나의 기의와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필연적이 아니라 자의적이며 임의적이 된다.

또한 이 기표와 기의가 가르키는 하나의 지시대상이 존재하는데 이때 기표와 지시대상의 관계 역시 임의적이게 된다. 이것은 단지 사회적인 약속일 뿐, 지시대상과 이것의 이름이 되는 기표는 언제·어디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시대상과 이 지시대상의 뜻인 기의와의 관계는 비임의적으로 필연적이 된다. ‘잎·줄기·뿌리가 있는 다년생 식물’이라는 이 기의를 하늘이나 책상에게 쓰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무라는 지시대상에게만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필연적이 된다.

우리는 항상 언어적인 활동을 할 때 이 위의 세 가지인 기의, 기표, 지시대상이 존재해야

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시대상이 실체하지 않아도 언어적 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추상적인 것들도 가능하다. 사랑, 그리움이라는 감정의 경우 지시대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의 기표와 기의는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대화가 가능하다. 또한, 하느님, 제우스 등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이 신화 속 인물들에 있어 이들의 지시대상이 명확하지 않아도 언어적 활동이 가능하다.

기호학적 연상은 기표를 보고 떠오르는 기의들을 말하고 그렇기에 이 둘의 관계가 임의적임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연상을 말한다. 이는 기호에 대한 연상에 있어서 다분히 편견적인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자'라는 기표에 있어 떠오르는 기의로 약하다, 양육, 긴머리, 치마, 간호사 등을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기호에 대한 연상 속에 편견이 다분히 들어가 있기도 하며 그렇게 이들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이런 기호학적 연상들을 이용하여 광고나 정치적 문구에 활용하기도 하며, 각종 인권문구에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흑인 인권운동의 슬로건인 "Black is beautiful"은 black하면 떠오르는 것이 beautiful이 되도록 하기위한 연상을 노린 것이며, 광고 등에 고급외제차와 함께 멀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마치 성공한 남성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것이다.

## ② 정체성·차별성<sup>3)</sup>

소쉬르는 기호의 의미는 그 자체의 고유한 어떤 내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속 '차이'에 의해 규정된다고 했다. 즉, 기표가 본질적으로 자신의 기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의와의 차이 속에서 연결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나무'라는 기표만 있으면 소통이 될 수 없는데, 하늘과 다리 등과 같이 나무와는 다른 기표들이 존재해야지 나무를 가리키는 기의와 연결이 되며 소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타자들과의 연관성과 체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성과 연결이 될 수도 있다. A가 있기에 B가 존재한다는 것처럼 언어가 작동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이 존재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차별성과 차이로 인해 이 언어들의 기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들로 인해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9시에 출발하는 부산행 열차'는 10년 전의 열차와 분명 다르다. 열차 자체, 운전사, 승객 등 모든 것들이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0년 전의 열차와 현재의 열차를 동일하게 '9시에 출발하는 부산행 열차'로 인식한다. 이는 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 기표들이 갖고 있는 다른 기표들과의 차별성, 그러니까 10시와는 다른 9시, 수원과는 다른 부산 등 이런 것들로 얻는 차별성으로 이것만의 정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장기 말 중에 馬말이 없어 다른 조약돌을 주워와 이 조약돌을 馬돌로 대신해서 장기를 진행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조약돌에 馬라는 정체성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언어들은 관계와 체계 속에서 차이로 인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 ③ 언어(langue)와 발화(parole)

인간의 언어(langage)는 언어(langue)와 발화(parole)로 나뉜다. 언어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를 말하며, 발화는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소쉬르는 언어가 사회적 사실인데 반하여 발화는 개인적인 사실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발화는 집단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3) 정경훈, "일반언어학강의", 해 : 기호와 사유, 아주대학교, 2016.3.28.목

개인적이고 순간적인 것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랑그는 결코 구체적·물리적 실체가 아닌 잠재적 구조라면 빠롤은 그것을 구체화한 실현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랑그로부터 파롤을 분리하는 것은 개인으로부터 사회를 분리하는 것과 같고 우연적인 것으로부터 본질적인 것을, 그리고 그 실현성으로부터 잠재성을 분리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빠롤의 영역은 자유의 영역이고 선택의 영역이며 창조의 영역이기도 하다고 했다.<sup>4)</sup>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언어는 단지 그 곁에 보이는 말의 표면을 말하는 것이라면 발화는 이 말하면서 담긴 숨겨진 뜻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재밌다’라는 말을 했을 때 단지 표면과 사회적인 생각에서 본다면 이는 그냥 즐겁고 재밌다는 하나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말하는 화자의 개인적인 부분과 순간적인 부분인 억양과 분위기, 표정 등이 합해진다면 이 ‘재밌다’가 반어의 표현이 될 수도, 평소보다 더한 격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랑그가 사회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물의 기본 개념임에 비해 빠롤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사물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되는 구체적인 언어의 모습을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너는 정말 장미 같다.’에서 장미를 랑그에서 보면 높이는 2~3M의 5~6월에 담홍색·담자색·흰색 따위의 꽃을 말할 텐데, 빠롤에서 본 장미는 열정적인, 아름다운, 화려한, 가시 같은 등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질 것이다.

### 3. 분석

영화 러브레터와 소쉬르의 언어기호학은 전혀 다른 분야로써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기호학적 부분에서 이 영화를 분석해보면 이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 들의 숨겨진 의미들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① 기호 & 기호학적 연상

영화 러브레터는 쉽게 말해 같은 이름을 가진 남녀의 사랑, 그리고 이 여자와 같은 얼굴을 가진 다른 한 여자가 마음을 정리해가는 내용이다. 기호학적 부분에서 본다면 여자주인공과 그리고 그를 사랑한 남자주인공 모두 동일한 기표 ‘후지이 이츠키’를 가졌다. 기표가 기의 그리고 지시대상과의 관계가 임의적인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는 분명히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둘은 같은 기표 속에서 다른 서로를 의식해갔고, 점점 속으로 서로를 좋아하게 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후에, 남자주인공의 약혼녀가 된 히로코와 그의 첫사랑인 이츠키(女)는 생김새가 똑같으며 실제로 이 영화상에서는 같은 배우가 열연한다. 이는 같은 지시대상인 것 같지만 다른 기의와 기표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기표와 지시대상의 관계가 임의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역시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이라고 했던 기의와 지시대상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것을 보아 이는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금’이라는 지시대상에 그것을 노란 금괴, Au등의 수많은 기의가 존재할 수 있듯이 똑같은 물체에 기의가 꽤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역시 반드시 필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기표와 기의를 가진 두 여인이지만 죽은 히로코(男)가 사랑한 동일한 지시대상의 모습을 가진 체 영화에 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4) 박진열, 「소쉬르 언어이론 및 한계에 관한 고찰」, 울산대학교 도서관, 2002, p38

또한, 이 영화는 기호학적 연상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사랑’과 ‘러브레터’이다. 첫사랑하면 연상되는 것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 아련함, 그리움, 그리고 어린 시절의 순수함 등이 있을 것이다. 영화 러브레터는 이를 굉장히 잘 활용하여 나타냈다. 동명이인은 두 후지이 이츠키는 중학생 시절에 만난 첫사랑으로 이 둘은 이츠키(女)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학교를 나오지 못할 때, 이츠키(男)가 갑작스럽게 전학을 가게 되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아련함을 가진다. 또한, 이츠키(男)가 죽으면서 이 둘은 결국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이 되었는데, 그로인해 이츠키(女)의 그리움이 증폭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 영화는 첫사랑이 가지는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전박적인 내용을 이끌어 가면서 관객의 감수성을 공략함과 동시에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러브레터’는 이와 반대로 기호학적 이미지를 역이용한 것이다. ‘러브레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남녀 간 보내는 편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사랑, 손수 손으로 직접 쓴 편지 등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 속 러브레터는 이츠키(女)와 히로코가 주고받는다. 이를 통해 히로코는 죽은 이츠키(男)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오히려 그를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계기가 된다. 이때 사실 정작 ‘러브레터’는 이 둘이 주고받는 손수 쓴 편지가 아니라 이츠키(男)가 남겨놓은 도서카드 속 후지이 이츠키(女)의 이름과 그녀의 그림이다. 이렇게 감독은 러브레터가 편지가 아니라 카드 속 이름과 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단지 러브레터의 연상되는 이미지에서 반전을 주어 관객들로 하여금 재미를 더했다.

## ② 정체성·차별성

이 영화 속 등장인물들을 통해 차별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같은 이름을 지닌 이츠키(男)와 이츠키(女)는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 더 부각되는 것이며 이 둘의 눈에 더 쉽게 띠는 것이다. 또한, 히로코의 등장으로 이 셋은 더 각기 차별성을 부여받는다. 특히 히로코와 이츠키(女)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서로의 편지와 이 남자와 관련된 추억들을 통해 이들은 각자 남자에 대한 다른 추억과 다른 의미를 부여 받았다. 이츠키(女)는 히로코를 통해 자신의 첫사랑인 동명이인 이츠키(男)를 기억해내고 점점 그를 그리워하고 그의 안타까운 사랑에 아쉬워한다. 반면에 히로코는 이츠키(女)의 존재로 자신의 약혼남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를 점점 잊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각기 다르게 흘러가며 각자 자신의 사랑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이츠키(女)에 대한 약혼남의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히로코는 자신을 향한 그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츠키(女) 역시 히로코의 그를 향한 그리움을 통해 그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도 역시 과거 이츠키(男)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알게 된다.

## ③ 언어(langue)와 발화(parole)

영화 러브레터의 감독 이와이 슌지는 언어의 특성을 활용하여 영화를 더 감동적이게 만들며 더한 여운을 주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언어와 발화의 차이를 이용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끔 하였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이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흥내 내는 お元氣ですか、私は元氣です!(잘 지내나요, 저는 잘 지내요!)의 부분이다. 이 문장을 단지 랑그로만 본

다면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나의 안부를 답하는 그런 어느 특별할 거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빠물처럼 개인적이며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를 담아 분석해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다.

자신의 죽은 옛 약혼남의 모든 것을 알아버린 히로코가 그가 죽은 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큰소리로 외치는 이 장면은 마치 그에게 따지듯이 들리기도 한다. 그녀의 약혼남인 이즈키(男)가 결국 좋아했던 것도, 죽기 전에 그리워했던 여자도 자신이 아닌 그의 첫사랑 이즈키(女)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그녀는 이 말을 외치면서 그녀가 가졌던 그에 대한 그리움, 집착, 그리고 섭섭함을 날려버린다. 이는 단지 안부의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닌 그녀의 가슴 속 응어리들을 날려버리면서 죽은 이즈키(男)를 이제 놓아주겠다는 뜻인 것이다.

히로코가 이렇게 외쳤을 때 동시에 고열로 병상에 누워있는 이즈키(女)역시 이 말을 울조리게 되는데, 이때의 그녀는 앞서 히로코와는 다르게 그와의 추억과 그리움이 그녀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그를 잊은채 살아왔던 그녀가 그에 대해 점점 기억을 되찾아 가면서 울조리게 되는 이 말은 단지 안부가 아니라 그에 대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한 그리움을 뜻한다. 이렇게 같은 문장이라도 화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슬한 의미를 가지며 다른 뜻을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즈키(男)와 그의 친구들이 불렀던 노래 ‘푸른 산호초’이다. 푸른 산호초는 일본의 여가수인 마츠다 세이코의 실제 존재하던 노래이다. 이즈키(男)의 친구들은 ‘이즈키가 마지막 순간에 불렀지. 절벽으로 떨어졌을 때 사람은 안보이고, 이 노래만 들리지 뭐야. 왜 하필 마지막 순간에 마츠다 세이코 노래를 했지? 그 가수 노래는 싫어했잖아’라며 이 노래의 첫 소절인 ‘아- 내 사랑은 남풍을 타고 움직여요. 아- 푸른 바람을 가르고 움직여요, 그 섬으로.’를 흥얼거린다.

랑그로만 봤을 때, 이는 그냥 남자가 죽기 전에 부른 그 노래에 불과하다. 그러나 빠물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이는 남자가 그의 첫사랑인 이즈키(女)를 죽기 전까지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즈키(男)가 있던 곳은 고베, 그리고 그의 첫사랑인 이즈키(女)가 있던 곳은 오타루이다. 그리고 남풍이란 남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을 말한다. 고베는 오사카 옆에 있으며, 오타루는 삿포로 옆에 있는 도시로 고베는 오타루보다 훨씬 남쪽에 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즈키(男)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사랑을 그녀에게 전하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히로코가 다음 날 잘 지내냐고 외치며 그녀의 마음을 정리한 것이기도 하다.

### Ⅲ. 결론

사실 언어 기호학 강의를 책으로 접해서 읽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책은 생각보다 어려우며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를 천천히 살펴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이며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말들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그만큼 쉽게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 속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이와이 순지의 러브레터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화 러브레터는 언어적인 특성을 통해 등장인물을 설정함과 동시에, ‘사랑’이라는 진부할 수 있는 소재를 잘 활용하였다. 서로의 각자 다른 사랑을 확인하는 매개체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혹은 잊혀졌던 그리움을 새롭게 불러내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데 언어를 기호로



써 잘 활용해내었다. 만약, 이들을 그냥 넘겼다면 아마 감동을 받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족했을 것이다. 또한 감독의 의도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언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며 몇 마디 말에 술한 감성들을 엮어 낼 정도로 힘이 많기도 하다.

이는 영화 뿐 만이 아니라, 광고, 정치인들의 문구 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언어적인 힘을 간과하지 말고 일들이 지닌 것들을 생각하여 여러 의도들을 못 알아듣지 말고, 오히려 이 언어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나무위키, “러브레터”, 2016.05.27,  
<<https://namu.wiki/w/%EB%9F%AC%EB%B8%8C%EB%A0%88%ED%84%B0>>, 2016.06.10
2. 박진열, 「소쉬르 언어이론 및 한계에 관한 고찰」, 울산대학교 도서관, 2002, p38
3. 소두영, 인간사랑, 서울, 1996, 기호학 참조
4. 정경훈, “일반언어학강의”, 해 : 기호와 사유, 아주대학교, 2016.3.28.목
5.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강의, 지식을 만드는 지식, 김현권 역, 2012